

전통공예품 장도·죽필...향토음식 망덕전어·불고기·닭숯불구이

광양 대표 브랜드 키우기 나섰다



광양장도



광양죽필

市, 상품 개발·마케팅 박차

우수성 알리고 관광자원 활용

3대 먹거리 '증명표장' 등록 완료

초남장어·재첩 등도 등록 추진

광양시가 지역 대표 명품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공예품과 향토음식에 대한 국내외 경쟁력을 키워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광양 은장도·대중·세계화 상품으로 =전통공예품인 장도(粧刀)는 휴대용이나 호신용으로 쓰이는 자그만 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통의 맥을 지켜오는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광양장도전수관은 3대의 맥을 이어오며 장도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 공간이다.

앞서 광양장도전수관은 지난 2014년 지역향토명품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현대화 생산기반을 구축,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특히 체험관을 꾸며 관광·여행객들이 손쉽게 장도를 접할 수 있고 장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양시가 장도 대중화·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도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대표적 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시는 대형유통점에 광양장도전수관 상설매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이 쉽게 접하는 응징도의 대중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죽필·대표 지역 명품으로 =광양죽필은 대나무를 활용한 한국 전통의



닭숯불구이



장어구이

맛과 향기를 살린 전통공예품으로 입소문이 났다. 대나무로 만든 펜, 만년필은 곧고 굵을, 원직, 고결함을 상징하는데다, 광양죽필은 '제 13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2010년)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디자인 측면에서도 상품성을 갖추며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광양죽필을 통한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광양죽필에 대한 전국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가격과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를 고려한 상품 개발·마케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광양죽필의 우수성과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죽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김선준죽필'의 김선준 대표가 전남공예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지역 먹거리...국민 입맛 돋구는 먹거리로 =광양망덕전어,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는 광양의 대표적 먹거리다.

예로부터 망덕포구에서 잡히는 전어는 살은 통통하고 비린내는 적으며 뼈가 무르고 고소해 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고 옛 어민들의 전어잡이 때 부르는 '진월 전어잡이 소리'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 57호로 지정된 상태다. '천하일미 마로화적'(天下一味 馬老火炙)이라는 말도 나온다. 마로는 광양의 옛 이름으로, 광양으로 유배 온 선비들이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으로 복귀한 뒤에 이곳에서 먹던 불고기 맛을 못 잊어 이렇게 읊조린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광양시는 이들 3대 먹거리에 대한 특허청의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고 광양을 찾는 여행객들의 입맛을 부추길 국가대표급 먹거리로 육성 중이다.

증명표장이란 상표권의 일종으로 서비스업의 품질, 상품, 생산방법, 원산지나 그 외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광양초남장어, 광양삼진강재첩도 특허청의 등록표장 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광양시는 내년에는 광양기점역에 대한 증명표장 등록도 추진해 관광상품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의 특색 있는 자원을 대표 명품으로 육성, 주민들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예산 1조원 시대 눈앞...내년 9409억원 편성

광양시가 예산 1조원 시대를 눈 앞에 뒀다.

광양시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940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343억원, 특별회계 30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037억)에 비해 33.75(2372억)늘어났다. 예산 1조원 달성에 얼마 남지 않았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

산업 투자와 기업 지원을 위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29억) ▲익산 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조성(18억) 등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아이 행복·장년 희망·여성 안전·어르신 건강 사업 추진을 담보할 ▲저출산 극복 지원(54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보육재단 운영(15억)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43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39억)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관련 사업비 100

억원을 편성,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양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를 결정된 '향의예술고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 78억원을 편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외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64억) ▲공공실버주택 건립(47억) ▲도심지주 차난 해소 및 공공주차장 조성(95억) 등을 편성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 전략 논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6일 '2020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을 위한 영업·마케팅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국내 2위 위상을 회복하고 '2018년 영업·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

로,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확보 및 300만 TEU 자립항만 구축을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광양항은 중국 항만의 공격적인 하역로 인하여 전략 등 항만 정체 변화로 컨테이너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회의는 2018년 광양항 마케팅 전략 및 인센티브 개편 방향, 선사·터미널 운영사의 운영 실적 및 2018년 운영 계획 등을 토대로 다양한 광양항 물량 유치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선사 및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들은 사별 운영전략을 공유, 광양항 환적물량 및 원양모선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나주시의 향교·서원 활용사업인 '나주향교-굵은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는 나주청년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LG화학 나주공장 증설 관련 11일 시청서 시민 설명회



나주시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LG화학 나주공장 증설(조감도)과 관련, 시민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장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중요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일부에서 제기했던 화학공장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공공증해소에 중점을 두고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건강과 안전성 확보 등 중대 사안은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알리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공장 증설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 계획 등을 업체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뒤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G화학은 오는 2018년 말까지 1430억원을 들여 친환경 거시제(可塑劑) 공장 증설(1190㎡), 촉매개발연구소 건립(3만370㎡) 등을 포함한 공장증설 계획(조감도)을 나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 향교 활용 문화재사업 탄력

'굵은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 등재

나주시의 서원과 향교를 활용하는 문화재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주시가 추진중인 향교·서원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굵은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이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면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서원·향교 활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향교-굵은 소나무 학교'가 전국 8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평가'결과, 우수 문화재 활용 문화콘텐츠로 선정됐다.

'나주향교-굵은 소나무학교'가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문화재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명예의 전당'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거쳐 3년 연속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이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매년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나무학교'는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소나무학교'는 향교를 지역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지역발전소로 만들기 위해 ▲나주이끼꾼강좌 ▲나주에절학당 ▲나주청년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다'는 프로그램도 나주읍성권의 문화유산과 황포돛대, 쪽염색 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올해 문화재청의 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냉·난방비 절감효과!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마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 062-5 3 1-3530